

최근의 치즈수급동향과 낙농의 과제

머리말

최근 출산율저하,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대체재와 근거 없는 안티밀크까지 가세하면서 시유소비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요구르트소비 또한 불안정한 변화를 보이면서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을 통한 시유 및 요구르트소비가 감소 내지 정체를 나타냄에 따라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에 수입을 포함하여 원유로 환산한 연간 1인당 우유·유제품소비는 지난 6년간(2010~2016) 64.2kg에서 76.4kg까지 증가해, 연평균 2.9%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치즈의 수급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본고는 상기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치즈를 중심으로 하는 유제품의 최근 소비동향과 금후 낙농의 과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
(영남대 명예교수)

치즈소비추이

〈그림 1〉은 지난 31년간(1985~2016) 치즈를 포함한 주요 유제품의 연간 1인당 소비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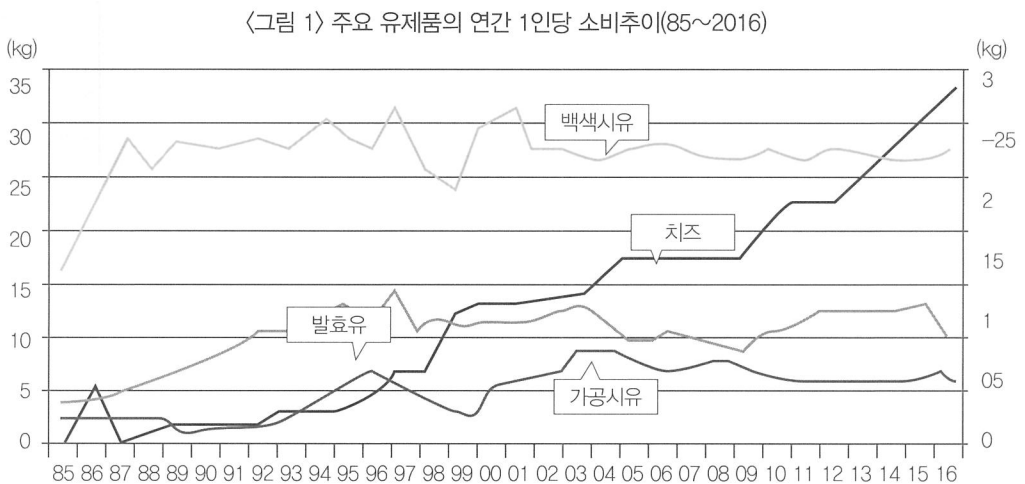
첫째, 백색시유는 1997년의 31.5kg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현재 27.0kg을 나타내, 지난 19년간(1997~2016) 연평균 0.81%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둘째, 가공시유 역시 2004년의 9.4kg을 정점으로, 2016년 현재 5.7kg까지 감소해, 지난 12년간(2004~2016) 연평균 4.1%의 높은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셋째, 발효유는 1997년의 15.2kg을 정점으로, 2016년 현재 10.0kg을 나타내, 지난 19년간(1997~2016) 연평균 2.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넷째, 치즈는 소비량이 미미했던 1980년대를 제외하면, 지난 21년간(1995~2016) 연평균 11.2%의 매우 빠른 성장을 나타냈다.

이상에서 치즈는 유제품 가운데 소비증가가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품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금후에도 그 같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 낙농진흥회

치즈수입과 낙농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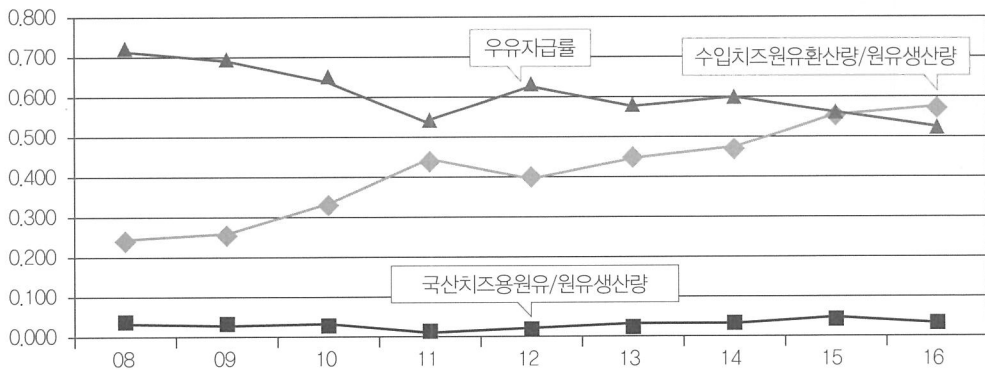
〈그림 2〉는 지난 9년(2008~2016) 동안의 우유자급률, 원유생산량에 대한 수입치즈의 원유환산량비율 및 원유생산량에 대한 국산치즈용 원유사용량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우유자급률은 원유생산량에 대한 수입치즈의 원유환산량비율과 역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유자급률이 치즈수입에 의해 좌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 내용을 보면, 2016년의 원유로 환산한 치즈수입량은 1,188천 톤(106,908톤)으로,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2,069천 톤)의 57.4%에 달한다. 한편 2017년 5월까지의 치즈수입상황을 보면, 중량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가 늘어난 55,202톤에 달한다. 따라서 2016년 현재 52.9%까지 하락한 우유자급률이 금후 50% 이하로 하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¹⁾

둘째, 그림에도 불구하고 2016년의 국산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는 46,498톤으로, 국내 원유생산량의 2.2%에 불과하다.²⁾ 이에 비해 유사한 생산여건 및 식생활패턴을 지닌 일본은 같은 해 치즈생산에 사용된 원유비율이 5.9%이며, 2015년 현재 우유자급률도 63.0%에 달한다.³⁾

이상에서 금후 FTA 체제 하에서 치즈를 포함한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낙농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근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는 EU 및 미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그 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⁴⁾ EU

〈그림 2〉 우유자급률과 치즈의 상호관계




자료: 낙농진흥회

및 미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가 각각 2015년 및 2016년에 철폐된다. 따라서 그 이전에 치즈를 포함한 차별화된 국산유제품생산을 늘리기 위한 대내적인 제도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맺음말

최근 시유와 요구르트소비가 감소 내지 정체세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치즈의 수입과 소비가 빠르게 늘면서 우유지급률하락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소비가 늘어나는 치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TA 체제 하에서 최근과 같은 사태가 지속되면 낙농의 생산기반축소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유·유제품은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하였다. 따라서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은 이제 단순히 한 산업의 문제를 넘어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낙농의 생산기반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낙농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정부, 생산자, 유업체의 공감대형성을 바탕으로 국제규범에 따른 낙농의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를 감안할 때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법 개정과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책이 언저까지고 낙농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한다면, 국제화에 따른 최종적인 부담은 생산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2016년 치즈수입량은 관세철폐통계이며, 치즈수율은 9%를 적용하였음.
2) 원유생산량에 대한 국산치즈용 원유사용량비율은 낙농진흥회 내부자료.
3) j-milk.
4) EU 및 미국산 치즈에 대한 관세가 각각 2015년 및 2016년에 철폐된다.